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1	③	2	③	3	④	4	①	5	⑤
6	⑤	7	②	8	②	9	④	10	④
11	③	12	④	13	⑤	14	③	15	①
16	⑤	17	④	18	②	19	⑤	20	①

1. [출제의도]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의 '나'는 이론 윤리학의 입장, '일부 윤리학자들'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이 선악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2. [출제의도] 성(性)과 혼인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오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만 인격성을 훼손하지 않고 서로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부부 사이의 성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정보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 이해하기

칼럼에서는 메타버스를 윤리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 [출제의도] 국제 관계에 대한 모겐소와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모겐소, 을은 칸트이다. 모겐소는 국가의 목표를 자국의 이익 추구라고 주장하였으며, 국제 평화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한 일시적 평화일 뿐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영구 평화의 확립은 이성의 명령에 따른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였으며, 영구 평화를 위한 세계 정부의 수립에 반대하였다.

5. [출제의도] 도가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시비, 선악, 미추(美醜) 등을 분별하지 말고 도(道)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형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례> 속 A에게 미(美)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6.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칸트, 베카리아, 벤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벤담이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며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로 인한 해악 방지로 보았고,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를 통한 사회적 효용의 최대화가 형벌의 목적이라고 보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을 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미래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을은 미래 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8. [출제의도]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조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을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롤스와 싱어는 모두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담론 참여자들이 진실성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어야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담론 참여자 모두가 동의하는 규범만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하이데거, 을은 야스퍼스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할 때 인간은 기술에 종속된다고 보았다. 야스퍼스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 보았으며,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기술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는 모두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영향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1. [출제의도] 자연에 대한 레오폴드, 테일러,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레오폴드, 을은 테일러, 병은 칸트이다. 레오폴드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가 고유의 선을 지닌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며, 자연은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다문화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가)는 다양한 문화의 존중이 사회 결속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반면, (나)는 단일한 문화의 형성이 사회 결속을 강화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소수 집단의 문화가 기존 사회의 문화로 동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으며,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 결속 강화에 기여함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13. [출제의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로크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해야 국가가 평화적으로 수립된다고 보았으며,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로크는 국가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구성원은 국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죽음에 대한 석가모니와 장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석가모니, 을은 장자이다. 석가모니는 삶과 죽음을 모두 괴로움으로 보았으며,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물의 실상을 깨닫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으로 보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자연적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 그 자체는 정의도 부정의도 아닌 자연적 사실이라고 보았으며,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으며, 강압과 절도 등과 같은 부정의로부터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롤스와 노직은 모두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벤담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였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면서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벤담과 칸트는 모두 윤리적 의사 결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예술에 대한 와일드와 플라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와일드, 을은 플라톤이다. 와일드는 예술이 미적 가치 외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예술이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도덕 원칙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음식 윤리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먹는 행위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먹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연자는 먹는 행위가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 [출제의도] 직업 윤리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와 순자는 모두 사회적 역할의 분담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았으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에 힘쓰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